

정읍시, 지역특화 전문인력 양성 나섰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산·학·연 11개 기관 실무위원회
취업·정책 위한 생태계 구축



정읍시가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지역 인력양성과 취업·정책을 위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읍시가 산·학·연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인력양성과 취업·정책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정읍시는 최근 지역의 인력 수요와 주력산업을 반영한 지역특화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행정과 학교, 연구소, 기업이 참여한 2차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사업 확대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전라대학교가 기초차지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전문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평생직업교육 역량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읍시를 비롯해 3대 국책연구소인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와 농축산유통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정읍교육지원청, 전북과 학대학교, 전북대학교 정읍점과 캠퍼스, 청년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SK 넥실리스,

(주)다원시스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바이오 관련 전공자를 연구원으로 육성 기회 부여 ▲취업 연계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 ▲MOU 체결 계획 등을 주제로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과 연계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9월에도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3차 확대실무위원회를 열고 지역인재 육성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10월에는 참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한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인재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관 정읍시 성장전략실장은 “우수 인재가 배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협력 체계 바탕으로 청년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4번째 책 발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일본 자료 ‘동학당 상황’ 등 번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4번째 책을 발간했다. 일본 자료를 번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일본 자료인 동학당의 상황(東學黨 狀況), 폭민 동학당(暴民東學黨),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중군일지(明治二十七年日清交戰(軍日誌))를 번역하고 이를 원문과 함께 엮어 만들었다.

‘동학당의 상황’은 일본이 1894년 6월 청일전쟁을 위해 군대 최고 통수기관으로 설치한 대본영에서 동학농민혁명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1894년 6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주한일본공사관과 일본 국민을 보호한다는 조선 파병의 명분, 동학농민군의 상황 및 동학농민군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목록 등이 기록되어 있다.

‘폭민 동학당’은 1894년 9월29일부터 1895년 3월25일까지 부산·인천을 비롯한 일본의 조선 소재 각 지역 병참사령부에서 일본 대본영 병참총감에게 보낸 전보 내용을 편찬한 것이다. 동학농민

군의 동정, 일본군·조선군 출병상황과 전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중군일지’는 시고쿠(四國) 지역 도쿠시마현(徳島縣) 아와군(阿波郡) 출신 후비보병 제19대대 제1중대의 상등병이 1894년 7월23일부터 1895년 2월27일까지 쓴 중군기록이다.

동학농민군 진압에 직접 참여한 일본군 병사의 중군일지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관련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일본 자료의 번역과 발간은 이번이 처음 이뤄졌다”면서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가 질적으로 심화되고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농업소득 지원 보조율 50%로 상향

군비지원 사업 6개 분야

쌀값 안정·면세유 지원 확충

고창군이 쌀 값 하락 등 농업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농업관련 부서장·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지역농업 현안 대책마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농업개방,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 피해 최소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고창군은 신속한 시장격리도 쌀값 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논타작물 장려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 쌀 값 하락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군비지원 사업 6개 분야(중소형농기계, 원예특작생산단지 지원,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 하우스작물재배용 수경법지원, 고추건조기 지원, 농산물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의 보조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농기계 면세유나 비료 인산분을 지원해 농작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농촌인력 부족 문제 관련, 청년 농업인과의 연계성을 위한 지원도 확충하며 추석맞이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행사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비율도 15%→20%로 높인다. 전폭적인 지원으로 내년 농업분야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49억3500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안전하고 활기찬 추석’ ... 남원시, 종합대책 마련 추진

보건의료·교통 종합상황실 가동
선별진료소·당번약국 지정 운영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이번 추석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활기찬 명절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추석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남원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 만큼 귀성객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의료, 교통 대책, 도로복구 등 7개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연휴기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추진되며 환자들의 응급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응급의료기관(남원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의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지정·운영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남원사랑상품권 구매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수축산물 20개 품목 등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한 교통대책도 내놴다. 시는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 터미널 등 주요 정차 구간에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고 공영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상습정체와 병목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 현장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는 깨끗한 남원을 만들고자 추석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명절을 맞아 대량 발생이 우려되는 생활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위해 청소민원처리반과 특별상황반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와 공직자가 앞장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이웃돕기 등 위문·봉사활동을 펼쳐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고향을 찾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풍성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농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공모전

고창군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료·디저트 신메뉴 공모전을 연다.

고창의 주요 농특산물인 수박, 멜론, 땅콩, 고구마, 보리, 식초, 인삼, 복분자(사진)를 주재료로 한 음료나 디저트를 만들어 응모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전은 고창의 대표 농특산물의 대중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소비될 수 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개발하기 위해 준비됐다.

요리전문가 뿐 아니라, 청소년, 학생, 주부 등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이미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독창적인 음료 혹은 디저트도 공모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18일까지 고창군청홈페이지와 배리엔바이오토포인구소에 올려져 있는 신청서와 요리설명서, 3분이내의 조리영상물을 제출하면 된다.

1차 심사에서 음료와 디저트 각 10개팀이 선정되며, 본선에는 6개팀이 시연 후 선발된다. 상금은 대상 300만원, 금상 150만원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씩 지급

1만 531농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고창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1만 531농가에게 60만원씩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총 지급 규모는 63억원 상당으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고창군은 2019년 전북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어업·농촌 공익적 가치의 전국적 확산에 일조했으며, 2020년 도내 14개 전체 시·군 확대 시행과 2021년에는 어가와 양봉농가까지 포함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류형으로 신청한 대상자들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으며, 카드형으로 신청한 대상자들은 본인이 소유한 카드에 60만원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어민 수당 조기 지급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해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